

EU, 7500억 유로 '코로나기금' 조성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7,500억 유로(약 8,3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

지난 29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7,500억 유로 구제 기금이 포함된 2021년~2027년 유럽연합 장기 예산안(MFF)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18일 정상회담을 통해 제안한 5,000억 유로보다 큰 규모다.

특히 구호 자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000억 유로는 EU가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해 보조금의 형태로 배분한다. EU 전체의 신용을 이용해 채권을 발행해 재정상황이 악화된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의 국가에 무상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금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탈리아가 820억 유로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이어 스페인 770억 유로, 프랑스 390억 유로, 폴란드 380억 유로, 독일 290억 유로 등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이같은 EU의 구상에 대해 오스트리아·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상태가 양호한 이들 국가들은 재정상황이 취약한 남부·동부유럽 국가들의 경제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EU의 제안은 EU예산의 구조적인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EU관계자들은 이번 예산안이 2021년 1월 1일 시작하는 EU예산과 관련돼 있는 만큼 앞으로 있을 예산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홍콩보안법' 통과 ... '일국양제' 폐기 수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미국 등 서방세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보안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홍콩 민주진영은 "홍콩보안법 제정은 일국양제의 폐기"라며 반발했으며 미국은 홍콩에 보장됐던 '고도의 자치'가 파괴됐다고 보고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 2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는 전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878명, 반대 1명, 기권 6명이었다.

초안은 '홍콩과 관련한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처벌' '외국의 내정간섭 금지' '보안법 집행기관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초안을 토대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법률을 구체화하면 홍콩 정부가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하게 된다. 8월쯤 법이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전면 차단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홍콩보안법 제정은 또 중국이 홍콩 반환 시 약속한 '일국양제' (한 국



▲ 지난 24일 홍콩시민들이 '홍콩국가보안법' 제정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KBS

가 두 체제)와 '항인치항' (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린다)을 폐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더욱 과격하게 밀어붙이며 대만 독립 문제 등에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콩보안법 제정에 경고를 보내온 미국은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근거해 홍콩에 경제·무역·비자발급 등에서 특별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자치권 미흡을 근거로 이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유 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 '기름 전쟁'

원유 매장량이 세계 최대인 베네수엘라가 극심한 연료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휘발유가 공짜에 가깝다. 보조금 덕에 소비자가 매우 낮아 1당 가격이 0.1센트에 못 미친다.

문제는 휘발유를 사고 싶어도 없어서 못 산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국영 석유기업 PDVSA의 누적된 관리 부실 등으로 원유 정제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미국 제재로 인해 원유와 휘발유를 맞추는 거라도 힘들어졌다.

연료 공급선이 잇따라 끊기면서 갈수록 연료난이 극심해졌고, 기름이 없어 차가 움직이지 못하니 식품 등 생필품의 원활한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 그야말로 '기름 전쟁'을 겪고 있는 것이다.



▲ 주유를 위해 기다리는 오토바이들 ©연합뉴스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진도 연료가 없어 출퇴근이 힘든 상황이다. 생계를 위해 차를 몰아야 하는 사람들은 휘발유나 경유 차량에 요리용 가스를 넣어 주행하는 위험천만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부자들은 공짜에 가까운 기름을 사기 위해 주유소에서 10시간 넘게 기다리는 대신 암시장을 이용하기도 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암시장에서의 휘발유 가격은

은 꺾던당 10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AP통신에 따르면 유가 보조금으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연 180억 달러의 부담을 진다. 제정이 열악한 베네수엘라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지만 기름값을 인상하기도 쉽지 않다. 1989년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제 위기가 찾아온 베네수엘라에서 유가 보조금 폐지 등 긴축안을 단행하려하자 거센 폭동이 벌어져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100% HAND WASH TRUCK / RV / CAR

왁스 · 스팀 세차 · 인테리어 청소

종목
TRUCK, RV, BUS, OVERSIZE, Fork LIFT, AUTO CARRIER, BOAT, ETC

서비스
WASH, STEAM, POLISH, WAX, INTERIOR DETAIL

특별 서비스
D.O.T. 서비스, PARKING SPOT(파킹장 임대)
AUTO DEALER(자동차 판매상) 문의환영
TRUCKING(운송 회사) 문의환영

KING TRUCK WASH

OPEN HOUR : MON-SAT 6am - 6pm

562.945.4826

mwleela@hotmail.com
www.kingtruckwash.com

12500 E. Slauson Ave., G-2,
Santa Fe Springs, CA 90670